

지역 소식통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난 17일 부안군은 관내 사회단체와 함께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친절, 질서, 청결을 실천하는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부안군에향 운동본부(본부장 장용석), 새마을운동부안군지회(회장 김갑근), 바르게살기운동부안군협의회(회장 채옥경), 부안시해로타리클럽(회장 김창윤) 4개의 사회단체와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배)가 함께 참여하여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에 힘을 보탰다.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은 친절의 마음으로 화합하며, 질서의 문화로 신뢰를 조성하고, '청결'의 의지로 품격을 높여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며,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매력도시 부안'을 만들고자 하는 범국민 의식개척이자 지역사랑운동이다.

/부안=김석진기자

벼 이삭거름 적기 사용  
고창군, 홍보·현장지도

고창군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이삭거름 적기·적량 사용을 위해 농업인 홍보와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삭거름은 벼 이삭이 줄기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무렵에 수량증가 효과를 보기 위해 주는 웃거름이다.

보통 이삭패기 25일 전(어린 이삭 길이가 1~1.5mm 생길 때)에 주는 것이 적당하다. 고품질 쌀 생산과 쓰러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삭패기 15일 전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용량은 10a당 NK비료를 10~11kg을 사용하면 된다. 벼의 잎색이 너무 짙거나 웃자라 쓰러짐이 우려되는 포장이나 잎도열병이 심한 논은 칼륨 비료를 사용해 병해충과 쓰러짐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주는 시기에 따라 쓰러짐, 수량, 미질이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 시기가 중요하다"며 거듭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부안군, 물의 거리 새단장

### 봉덕리 778-1~769-3 일원 총 13억8,000여만원 투입 소통·문화 광장 테마, 상권 연계 경제 활성화 도모

부안군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후된 시설물 정비 등 부안읍 물의 거리(경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물의 거리와 주변 시설은 지난 2006년 부안읍 수정길 일대 구간을 대상으로

로 부안읍 첫 경관사업으로 조성한 거리이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하는 구간은 분수대 깊이로 인한 부유물 걸림과 해충 등 안전사고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곳으로, 물의 거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정비 사업을 추진해



부안군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후된 시설물 정비 등 부안읍 물의 거리(경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꾀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은 부안읍 봉덕리 778-1(봉룡파쉬 머리)부터 봉덕리 769-3(봉룡파쉬 꼬리) 일원으로 사업비 13억8,000여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의 방향성을 군민들에게 물음 상상하며 걷고 싶은 거리'로 기억될 수 있게 정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자생적 성장이 가능한 소통·문화의 광장 등의 테마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기존의 조형물을 보존하며 주변 환경과 노후 수로를 재정비해 산책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물론 테마가 있는 바다 분수광장 구성과 포켓공간 조성으로 아늑한 휴게공간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자생적 성장이 가능한 소통과 문화의 광장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도입해 주변 상권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부안군 도시공민과장 김지영과장은 "누구나 편하고 힐링 할 수 있는 친수공간 재정비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기센터 대강당에서 민선 7기 시정 주요 핵심사업 관련 업무연찬회를 가졌다.

## 향기공화국 정읍, 선제적 대응 방안 논의

### 정읍시농기센터 업무연찬회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기센터 대강당에서 민선 7기 시정 주요 핵심사업 관련 업무연찬회를 가졌다.

정읍시정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정 주요 핵심 설명회의 일환으로 민선 7기 핵심사업에 대한 농업부서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날 업무연찬회에는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5개 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완옥 소장은 ▲향기공화국 조성

▲용산호·정읍사공원 주변 개발 ▲

▲SOC확충 ▲동학농민혁명기념시설조

성 등 중장기 7가지 현안 사항을 안내하며 직원들과 공유했다.

이들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향기공화국 정읍과 정향누리 테마로 한 핵심사업을 공유하고 악취 제로 시티 조성 등 농업부서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불어, 연찬회 후 부서별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직원별·팀별 순차적으로 연찬회를 이어 나갔다.

이완옥 소장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의 정확한 이해와 농업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직원들의 적극 행정과 선제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지역 식생자원 이용관리 해법 '머리맞대'

### 고창군·한국식생학회 학술대회

고창군이 국내 생태자원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식생학회와 함께 학술대회를 열고 식생자원 이용관리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고창군은 이날부터 이틀간 사)한국식생학회와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서 '고창군 식생자원의 다양성과 이용관리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학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림생태의 세계최고 권

위자인 김은식 세계생태학회회장, 이희철 전 국립생태원장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첫날(17일)에는 명사산티 사구, 외죽도, 인천강과 운곡습지 등 고창의 청정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식물의 다양성과 서식지 특성, 관리방안 등에 대해 7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열띤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둘째날(18일)에는 고창군 환경지킴이 단체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와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의 회원들과 함께 운곡습지 일원의 현장답사

를 통해 고창의 식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계획이다.

탐사르 운곡습지 일원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3종(수달, 삿, 말뚝가리) ▲천연기념물 2종(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 1종(낙지대리) 등의 다양한 보호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외에도 식물 49종, 포유류 11종, 조류 48종, 곤충 22종, 양서·파충류 9종 등 총 550여종의 이르는 야생 동식물이 주변 마을주민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공모 선정

정읍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정읍시는 국비 8억원을 지원받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안전통합센터의 CCIV를 112 및 119 상황실과 실시간 연계하여 긴급구

조 및 출동 지원, 범죄·화재 예방과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이다.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현장 주변 영상과 용의자 도주 경로 정보 등이 바로 제공돼 신속한 범인 검거가 가능하다.

또, 화재 현장 출동 소방관이 현장 영상과 위험시설물 설치 현황, 교통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 현장 도착 전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도시 숲으로 미세먼지 잡는다

### 하북동 군대마을 입구 이어, 노후 공단 주변에도 조성 바차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치솟은 데다 미세먼지 문제가 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기승을 부리면서,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민들에게 녹지가 풍부한 도시 숲이 각광을 받고 있다.

시는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북동 군대마을 입구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한 데 이어, 제2 일반산업단지 내 노후 공단 주변에도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에 바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춰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미세먼지 저감 숲'은 내부의 공기 흐름을 적절히 유도하고 수목의 줄기, 가지, 잎 등의 접촉면을 최대화해 숲이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숲이다.

하북동 847번지 일원 사유지 등 총 1.4ha 규모의 부지에 조성되며 지난 6월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초 준공 예정이다.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시나무와 동백나무, 홍가시나무 등 약 1만 본 이상의 수목을 식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으로 도시 경관 개선은 물론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